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5호 【무제 제 25584호】 주제 106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고있는 전채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새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려이 창조되고있는 렬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김정관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1월 25일 렬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태양절까지 렬명거리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맞게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특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렬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환경보호에도 좋고 휴식장소로도 리용할수 있도록 40층이하의 건물옥상들에 지붕복합기술을 도입하였을뿐만아니라 거리의 곳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판목들, 잔디를 심어 방대한 목지면적을 조성하였는데 잘하였다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려명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의 외벽색깔을 녹색과 흰색으로 통일시켰는데 거리를 건너느라니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물소위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 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채 건설자들은 렬명거리건설을 당에서 정해진 날까지 무조건 완공하고야말 불타는 일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부지면적이 90여정보이고 연건축면적이 172만 8,000여㎡에 달하는 방대한 건설공사를 태양절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특히 70층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축구경기장을 몇개 합친것보다 더 큰 4만 3,000여㎡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외벽타일붙이기를 13일동안에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른새벽 렬명거리건설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희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볼만 하다고, 불장식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렬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떠오르듯만 같다고, 말그대로 렬명거리라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북부피해복구전투로 건설을 식탐이나 중지하였는데도 벌써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전변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추운 날씨에도 타일붙이기를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끝내었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양지쪽에 장식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도록 태양발전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착상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채광창으로 된 지붕을 띄워 연결 통로종합봉사망을 꾸려놓았는데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렬명거리에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마치도 이 잘나무와 붓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에 들어선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건축물들이 생김새도 멋있고 색깔도 마음에 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려명거리의 초고층살림집지구는 물론 다층살림집지구도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특색있게 건설되었다고 하시면서 초고층건축군과 다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떠선 렬명거리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